

음악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질문 유형과 특성*

양 종 모**

이 연구는 음악 수업의 질문 분석 기준을 개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음악 수업을 분석하여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질문 유형을 밝히고, 그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 수업을 촬영한 동영상 25편과 그것을 전사(傳寫, copy)한 자료이다. 연구의 결론은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 수업을 분석하는 질문 분석 기준은 음악 수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우수한 음악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은 인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 기타 영역이 유사한 비중을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 음악 수업에서는 생산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의 비중이 비교적 낮다. 넷째, 우리나라 음악 수업에는 가창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후속 연구로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질문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것을 제안한다.

※ 주제어 : 음악수업, 교사의 질문, 질문의 유형

차 례

I. 서 론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3. 연구 절차

2. 질문 분석 기준

III. 연구 결과

1. 질문의 전체 빈도 분석
2. 영역별 질문 분석

IV. 결론 및 제언

* 이 연구는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부산교육대학교 조교수

I. 서론

질문의 일반적인 정의는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물음'이다. 질문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말하고,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은 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부족한 정보를 탐색하여 주어진 정보 이상으로 뛰어넘게 한다. 또한 질문은 학생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끌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한다(이명숙, 2004, 56). 따라서 교과나 학년 또는 교사의 특성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교수 장면에서 질문은 기본적인 수업 전략이다(조영남, 2004, 31).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드(Nathan Bond, 2007)는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질문하기 전략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며, 파커와 허리(Mary Parker & Jane Hurry, 2007)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교사의 질문법이 의미 있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교과에서 질문의 교육적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수향(2008)은 교사와 유아 간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나타난 교사의 질문 방법 및 언어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였다. 그녀는 교사의 질문을 단순히 사물의 명칭을 묻는 질문이나 일을 회상하여 대답할 수 있는 재생과 관련한 질문, 따라하거나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그것들의 순위를 밝혔다. 이영미(2006)는 웹기반에서 반성적 사고 능력 촉진을 위한 질문 생성 전략의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 그녀는 이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 능력에 학습자와 교사 상호 질문 생성 전략이 학습자 상호 질문 생성 전략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것은 교사의 질문이 학습에 효과를 확인해 준다. 류재인 외(2006)는 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질문 방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질문의 양이 부족하며, 질문의 다양성도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정아(2007)

는 체육 교사의 질문이 유아의 인지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그 외 수학과 등 많은 교과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재춘, 박소영, 2006; 변재형, 김민경, 2004).

대부분 교과의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은 학생과의 소통 혹은 상호 작용의 수단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과의 목표와 수업 내용에 따라 질문의 유형이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국어과와 사회과는 언어나 문자가 질문의 주된 유형이고, 수학과에서는 숫자를 통한 질문이 중요하며, 미술과는 언어 이외에 그림이나 조각, 서예 등이 소통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사의 질문 매체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질문 연구는 그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질문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음악 교과에서도 질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음악과에서의 질문 연구는 음악을 통한 심미적 경험의 과정에서 질문이 유용하다는 점을 가정하고, 효과적인 질문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거나(천유화, 2008; 고은아, 2007) 음악 교과에서 나타나는 질문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양종모, 2008). 그러나 이러한 음악과에서의 질문 연구는 실제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질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문헌연구로 제한하여 진행해 왔다. 음악과 수업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과 신체 표현, 신호 등을 통한 학습 활동이 많기 때문에 언어 이외의 질문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수업의 특성을 고려한 교사의 질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음악과 수업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듣고, 음악을 만든다. 음악과 수업은 음악을 표현하고 만드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음악성 이외에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운다. 음악과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여 더 좋은 표현 방법을 찾고 실제 표현을 하게 한다. 교사는 언어적 질문 이외에 지휘하기, 노래부르기, 피아노 치기, 악보 그리기 등 다양한 행위를 하는데, 지휘하기는 “노래를 우아하고 멋지게 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불러봅시다.”라는 반응을 요구하는

무언의 행위이다. 말없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노래를 시작하는지 알아요? 내가 반주하면 리듬을 타면서 힘차고 밝게 노래를 불러 봅시다.”라는 요청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혹은 교사가 선창을 한 후 손으로 학생을 가리키는 간단한 손짓은 “나와 같이 노래 불러 보세요”라는 요청이다. 이런 교사의 행위는 모두 학생들에게 음악적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로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수단이다. 마치 국어 시간에 “이 시는 어떤 느낌을 주지요?” 혹은 수학 시간에 “3곱하기 4의 답은 뭐죠?”라는 질문과 음악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교사의 행위들은 교육적 기능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결국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음악 수업에서는 언어 이외에 질문의 기능을 하는 교사의 음악적 활동이나 신체 행위가 있으며, 그것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과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 분석 기준을 얻어야 한다. 최근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질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문에 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수업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질문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많이 발견되지만 실제 수업 중 어떤 것을 질문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는 부족하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음악과 수업에서 어떤 상황을 질문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알아야 하고, 질문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음악과의 질문 분석 기준은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질문의 유형을 살핀 것이 전부이다. 교사용 지도서와 실제 수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질문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 수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음악적 능력은 인간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음악 교과는 음악적 능력과 함께 창의성이나 사고력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음악과 수업의 의미가 이론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이 판단 기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언어로 규명되지 않는 교과의 가치는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음악 수업의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 질문을 활

용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 행동, 지시 등을 하면 학생들은 그에 따라 언어나 음악 혹은 행위로 반응을 한다. 이 과정을 교사의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 음악 수업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음악 수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 수업의 특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의 상대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까운 일본의 음악 수업과 우리나라의 음악 수업을 교사의 질문이라는 동일한 관점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수업의 상대적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질문 유형을 분석하여, 음악 수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사의 질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얻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수업의 교사 질문 분석 기준을 개발한다.

둘째, 음악과 수업을 분석하여 음악 수업의 특성을 이해한다.

셋째, 개발한 음악과 수업의 교사 질문 분석 기준의 유용성을 논의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우수한 음악과 수업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질문의 양상을 살피고 특성을 이해할 때, 바람직한 질문에 대한 기준이나 적절한 질문 유형이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수하다고 판정 받은 음악과 수업을 촬영한 25편의 동영상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25편 중 13편은 우리나라 음악 수업 동영상이고, 12편은 일본의 음악 수업 동영상이다. 동영상은 초등학교의 음악 수업을 담고 있으며, 사전에 준비하여 만든 공개 수업이다.

우리나라의 음악 수업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수업으로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 10편과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의 공개 수업 2편, 그리고 연구자가 관찰한 수업 중 우수하다고 판단한 1편 등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2년부터 교실수업 개선사업, 주제장학사업, 수업발표대회 등으로 우수 수업을 발굴하고 그 동영상상을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고 있는데 그것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는 교내에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수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 수업은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연구자가 선택한 한 편은 해당 학교에서 연구의 일종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수업의 질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 포함한다.

일본의 음악 수업은 후쿠오카교육대학 음악교육과 니노미야 츠요시 교수와 키무라 쓰기히로 교수가 우수한 수업이라고 추천한 일본의 음악 수업 동영상 12편이다. 일본의 수업 동영상은 후쿠오카교육대학교의 부설초등학교 음악 교사가 다른 학교의 음악 교사들에게 공개한 수업을 촬영한 것과 공립초등학교의 우수교사가 공개 수업을 한 것을 촬영한 것이다.

동영상은 1996년과 1997년에 촬영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촬영한 것이다. 우수 수업의 동영상 편수가 많은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오래된 동영상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각 동영상의 시간(분)은 일반 수업 시간과는 다르다. 한국의 동영상은 학생들의 모둠 활동 부분을 제거하여 일반적인 45분보다 짧은 것이 많으며, 일본의 동영상은 수업 시간을 늘려 잡아 45분보다 긴 것이 많다. 일본의 동영상에는 학생들의 모둠 활동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긴 것이 많다.

학년에 따른 편수는 한국은 1학년과 3학년이 각각 1편이며, 그 이외의 학년은 2-3편씩 있다. 그리고 일본은 5학년은 없으며, 3학년과 6학년은 1편이고, 2학년은 2편, 4학년은 5편 등 학년별로 편차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학년별 동영상이 편수에 차이가 있어 학년별 특성 비교는 하지 않는다.

<표 1> 한국의 음악 수업 동영상 목록

연번	교사명	주제	학교	학년	촬영시기	시간 (분)	연번	교사명	주제	학교	학년	촬영시기	시간
1	남순옥	어린이음악대	민력초	1학년	2004 수업발표대회	31	8	서종우	동네한바퀴	동신초	4학년	2008 교내수업대회	43
2	김복선	허재비	양정초	2학년	2003 수업연구대회	39	9	황선만	모두모두 자란다	부산교대 부초	5학년	2008 교내수업연구	41
3	강은정	우리나라 좋은 나라	미남초	2학년	2008우수 수업공개발레이	38	10	배경희	아침해	연천초	5학년	2003 주제장학수업	21
4	이숙조	우주여행	신령초	2학년	2004 ICT활용연구학교	34	11	윤희경	싸움	서곡초	6학년	2004 수업연구발표	32
5	곽세영	'리' 자로 글나는 말은	동원초	3학년	2003 수업장학수업	19	12	배은희	끼리끼리	과동초	6학년	2007우수 수업공개발레이	37
6	박소영	피터와 늑대	부산교 대부초	4학년	2008 생각하는수업	47	13	배현주	가을맞이	신금초	6학년	2004 수업발표대회	24
7	손양임	피터와 늑대	정관초	4학년	2002 교실수업개선	33							

<표 2> 일본의 음악 수업 동영상 목록

연번	교사명	주제	학교	학년	촬영 시기	시간 (분)	연번	교사명	주제	학교	학년	촬영 시기	시간
1	川野暢子 (kawano nobuko)	백곰의	부속 쿠루메 초등학교	1학년	2006	22	7	倉本京子 (kuramoto kyouko)	원구름	부속 코쿠라 초등학교	4학년	1997	51
2	川野暢子 (kawano nobuko)	아이아이	부속 쿠루메 초등학교	1학년	2006	50	8	小川公子 (ogawa kimiko)	마법방울	부속 코쿠라 초등학교	4학년	2006	50
3	川野暢子 (kawano nobuko)	차차 달보	부속 쿠루메 초등학교	2학년	2006	77	9	三美 晃 (miyosi akira)	Green Green	수기나미구 립제5 초등학교	4학년	1987	39
4	川野暢子 (kawano nobuko)	벌레소리	부속 쿠루메 초등학교	2학년	2006	148	10	豊村雅義 (toyomura masayosi)	Edelweiss	부속후쿠오 카 초등학교	3학년	2002	48
5	川野暢子 (kawano nobuko)	축세 왕요이	부속 쿠루메 초등학교	2학년	2006	69	11	原みちよ (hara mitiyo)	the Sound of Music	오오부타 시립하야 메미나미 초등학교	4학년	1996	18
6	小川公子 (ogawa kimiko)	우리들의 북	부속 코쿠라 초등학교	4학년	2008	47	12	豊村雅義 (toyomura masayosi)	가극 『Carmen』	부속 후쿠오카초 등학교	6학년	2002	39

2. 질문 분석 기준

1) 일반 원칙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 질문을 분석하는 기준은 양종모(2008)의 '음악 교과에서 교사 질문하기의 분석 준거'에 제시된 기준을 실제 음악과 수업 동영상 분석하는데 적용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활용한다. 이 선행 연구에서는 음악과에서 나타나는 질문의 유형을 수업 목표에 따라 구분하여 먼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눈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사실적 질문, 경험적 질문, 생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 등 무어(K. D. Moore)의 질문 구분법을 활용하여 구분하고, 심동적 영역에 대해서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활동 영역에 기초하여 노래하기, 악기 연주하기, 창작하기, 감상하기 등으로 구분하여 음악과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활동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생활화, 음악의 느낌과 관련된 질문, 음악을 즐기는 태도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정의적 활동과 심동적 활동이 많은 음악과의 특성을 잘 반영한 질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분석 기준은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검증된 것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이 기준을 활용하여 실제 음악 수업 3편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질문의 개념을 더 명료하게 하고, 일부 항목을 더 추가한다.

2) 질문의 의미와 기준

질문은 일반적으로 의문형의 문장이어야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질문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형태의 교사의 말과 행동이 질문의 기능을 한다. 때때로 교사가 말은 하지 않고 응답을 요청하는 의미를 두고 학생을 손으로 가르키는 행위가 질문이 될 수 있다. 즉 사전적 의미의 질문에 해당하는 교사의 의문형의 말뿐만 아니라 단순히 학생의 이름 부르기, 신체적 표현 등도 질문의 기능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질문이라는 범주에 포

함시켜야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질문은 의문문의 말에 한정하지 않고, 질문의 기능을 하는 교사의 말과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언어적 활동 중 의문형의 문장에 한정하지 않고,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학생의 응답을 요구하는 교사의 언어나 행위는 모두 질문으로 분류한다. 교사가 구사한 언어가 의문형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질문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답이 뭐니?'라는 의문형의 문장이나 '답을 말해 보세요'라는 청유형이 문장은 모두 학생에게 질문의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리고 단지 '영희야'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영희야 답이 뭐니?'가 축약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될 수 있다. 또한 손가락으로 학생을 가리키는 행위 역시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중 교사의 질문은 교사가 말하는 의문형의 문장에 한정하지 않아야 하며, 전후의 맥락을 살펴 교사의 표현 유형에 관련 없이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거나 행동을 자극하는 교사의 언어나 행위는 모두 질문으로 분류한다.

둘째, 학생들의 심동적 활동을 유발하는 교사의 언어나 행위를 질문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인 질문은 인지적 영역에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음악 수업에서 중시되고 있는 심동적 영역과 관련한 교사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대부분의 교과와 학습 목표는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를 촉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과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계발과 함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심동적 영역의 기능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활동을 자극하고 실제 활동하게 하는 교사의 언어나 행위는 다른 교과에서 질문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음악 활동을 자극하는 교사의 언어와 행위 전체를 질문의 범주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노래 불러 볼까?', '악기를 연주하여 볼까?', '창작하여 볼까?', '음악을 들어 볼까?' 등이 심동적 영역의 질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하는 행위 역시 '노래 불러 볼까?'라는 말이 생략된 교사의 행

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동적 영역의 질문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감정이나 태도에 관한 느낌을 갖게 하는 교사의 언어와 행위를 정의적 영역의 질문으로 분류한다. 음악 수업 시간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중시한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태도를 갖게 한다. 정의적 영역의 질문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교사의 언어와 행동인 것이다. 이것은 교사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여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장면, 혹은 아름다움에 대한 교사의 단순한 질문(재미있어요?, 즐거워요?)이 해당된다.

넷째, 질문 이외에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업 내용에 대한 교사의 설명, 교사의 응답, 교사의 지시 등은 별도로 구분한다. 교사는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수업에서 이 설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에 대해 교사가 '참 잘 했어요', '대답이 훌륭해요', '정욱이가 만든 리듬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네요' 등으로 말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분류한다. 또한 학습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책을 펴시오', '창문을 닫으시오', '자리에 앉으시오' 등의 요청은 교사의 지시로 분류한다.

다섯째, 인지적 영역의 하위 구분은 사실적, 경험적, 생산적, 평가적 질문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사실적 질문은 정보의 단순한 재생으로 '-을 정의하라', '-한 사람은 누구인가', '교재에는 -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다. 경험적 질문은 주어진 또는 재생된 정보의 통합과 분석으로 '-을 비교하라', '-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라', '-을 계산하라' 등과 같은 질문이다. 생산적 질문은 창의적이고 상상력 있게 사고하여 무언가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것으로 '-대한 멋진 이름은 무엇인가', '-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같은 질문이다. 평가적 질문은 판단 또는 가치 표현에 대한 것으로 '어떤 그림이 가장 나은가', '왜 -을 좋아 하는가', '-에 누가 가장 책임자인가' 등과 같은 질문이다.

3) 질문 구분의 세부 기준

기본적인 질문의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수업에서 질문의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인지적 영역의 세부 기준

전술한 대로 인지적 영역의 세부 기준은 사실적, 경험적, 생산적, 평가적 질문 등 네 가지이다. 여기에서 우선 사실적 질문과 경험적 질문은 비교적 정답이 명료한 물음이며, 생산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인정하는 물음이다.

사실적 질문(I-①)은 오보에라는 악기를 보여 주면서 ‘이 악기는 무슨 악기지요?’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명료한 답을 가진 경우이고, 이와 질문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오보에란 악기를 보여주지 않고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 악기는 무슨 악기지요?’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질문(I-②)으로 구분한다. 후자의 경우는 자신이 청각으로 경험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들을 머리의 상으로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악기 이름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각으로 현물 자체로부터 비교하는 전자보다는 인지 단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생산적 질문(I-③)은 어떤 것을 만드는데 요구되는 개인적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현악 4중주를 감상하게 한 뒤, ‘이 곡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이 곡의 빠르기를 더 빨리하고, 리듬을 조금 더 분할하면 생동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면,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이 질문은 생산적 질문으로 분류한다. ‘돌립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노래를 신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가?’ 등의 질문이 여기에 속한다.

평가적 질문(I-④)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개인적 혹은 보편적 기준으로 평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업 중 ‘잘 연주한 점을 연주 기술, 표현, 그리

고 태도에 대해 각각 발표해 봅시다.', '칭찬해 주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음악적 특성을 발표해 봅시다.', '이 연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봅시다.' 등이 이 질문 유형에 속한다.

(2) 심동적 영역의 세부 기준

심동적 영역의 세부 영역은 노래 부르기(II-①), 악기 연주하기(II-②), 창작하기(II-③), 감상하기(II-④), 신체표현하기(그림 그리기기 포함II-⑤) 등이다. 교사가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하거나 말없이 노래 부르기를 유도하는 ‘반주하는 행위’는 모두 학생들에게 노래 부르도록 하는 언어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심동적 영역의 노래 부르기(II-①)로 분류한다. ‘따라 불러 보자’, ‘시작’ 등의 교사의 말도 이 영역에 속한다. 또한 음악 수업에서 지휘하기는 ‘노래를 불러라, 노래 부를까요?’, ‘함께 악기를 연주하자’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래부르기(II-①)나 연주하기(II-②)로 분류한다. ‘음악을 만들어 보자’, ‘즉흥적으로 발표해 보자’ 등은 창작하기(II-③)로, ‘음악을 들으시오’, ‘들어 볼까?’, ‘집중해 들어 보세요’ 등은 감상하기(II-④)로, ‘손기호로 표현해 볼까요?’,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등은 신체/그림 영역(II-⑤)으로 분류한다.

그 외에 박수나 리듬 악기를 치며 노래하는 경우는 합주로 인정하여 악기 연주하기로 분류하였다. 역시 교사가 먼저 연주하고 학생들이 따라하게 하는 과정이나 첼판의 음표를 보고 리듬치기 하는 것 역시 악기 연주하기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인지적 성격이 있지만 단순한 구분을 위해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3) 정의적 영역의 세부 기준

정의적 영역은 태도와 기호 등에 대한 것이며,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관련 있다. 인지적 사고를 통하지 않고 느낌이나 기분 등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답하게 하는 질문이 여기에 속한다. ‘오늘 음악의 느낌이 어떤가요?’ 등과 같이 주관적인 정서를 묻는 질문이나 ‘아름답지요’ 등과 같이 느낌을 나누도록 요청하는 질문은 정의적 영역의 질문(III)

으로 구분한다. 학생들이 '좋아요', '싫어요' 등으로 대답하는 질문도 이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4) 설명, 응답, 지시

설명은 학습 내용이나 방법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언어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손기호는 손으로 음의 높이를 보여 주는 기호예요', '3/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있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수업은 당김음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먼저 노래를 부르고, 노래에 속에 있는 당김음을 배울 것입니다.' 등과 같은 수업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안내도 설명으로 분류한다.

응답은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을 의미한다. 학생이 대답했을 때, 교사가 '잘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등의 대응을 응답으로 분류한다. 응답은 다음 질문과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의 응답 이후에 바로 질문이 나오더라도 한 개의 질문으로 분류한다.

지시는 수업의 목표와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이 수업의 진행이나 학생 집중을 위해 나타나는 교사의 언행이다. '음악 책을 펴세요', '바로 앉아', 수업 집중을 위한 박수, '수업 마치겠습니다' 등과 같은 수업 진행에 대한 지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3> 음악 수업의 질문 유형 분석 기준

구분	의미	세부 구분, 예시
I. 인지적 영역	교육과정에서 이해 영역으로 분류되는 음악의 내적 지식과 음악의 외적 지식(백락적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질문을 모두 포함한다.	①사실적 질문 ②경험적 질문 ③생산적 질문 ④평가적 질문
II. 심동적 영역	교육과정에서 활동 영역으로 분류되는, 음악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신체 표현, 그림 등의 표현 활동이 그 예이다. 의문문의 질문하기보다는 지시나 요청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교사가 반주 등의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①노래하기 관련 ②악기 연주하기 관련 ③창작하기 관련 ④감상하기 관련 ⑤신체 표현, 또는 그림 그리기 등

구분		의미	세부 구분, 예시
III. 정의적 영역		태도와 기호 등에 대한 것이며,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과 관련있다. 인지적 사고를 통하지 않고 느낌이나 기분 등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답하게 하는 질문이 여기에 속한다.	아름다워요?, 재미있지요?, 음악의 느낌이 어때요? 등
기타	IV. 설명	학습 내용이나 방법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언어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손기호는 손으로 음의 높이를 보여 주는 기호예요. 3/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V. 응답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 전체	맞아요, 잘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VI. 지시	수업의 목표와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이 수업의 진행이나 학생 집중을 위해 나타나는 교사의 언어와 행위	책을 펴세요, 따라하세요, 학습지를 넣으세요, 알겠지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등

3. 연구 절차

연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질문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비 기준을 만들었다. 양종모(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질문 분석 기준을 예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이 되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 수업 동영상을 수집하였다.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동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는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수집이 간단했지만 일본의 동영상은 일본 교수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동영상 요청을 하였지만, 동영상을 받는 과정이 5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또한 동영상의 출처와 교사의 성명 그리고 수업의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셋째, 동영상을 전사하였다. 전사물을 동영상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언어와 행위를 상세히 볼 수 있도록 꼼꼼히 글로 적었다. 일본의 동영상은 일본에 유학한 전문가가 전사하였다. 일본 동영상의 영상 상태가 고르지 않아 전체를 전사하는데 한 달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동영상은 연구자

가 먼저 두 개의 수업을 전사하고, 음악교육과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전사물 예시를 참조하여 1인당 한 두 개씩의 수업을 전사하였다.

넷째, 예비 질문 분석 기준에 따라 전사한 수업 3개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양종모(2008) 연구의 분석 준거를 수정하여 기준을 완성하였다. 수정 부분은 대항목의 기타 영역에 설명, 응답, 지시를 포함시키고, 심동적 영역에 신체적 활동과 그림 그리기를 더 한 것이다.

다섯째, 전체 동영상 전사물에 대하여 교사의 언행을 질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교사의 언행은 교사와 학생의 한 번의 상호작용 부분을 한 개로 보고, 그것들을 모두 질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 진행하였다.

여섯째, 전사한 내용에 대해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교사의 언어와 행위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전체 전사물을 검토하였다. 이 검토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수정하여 재분류하였다.

일곱째, 구분한 기준별 개수를 셈하여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업별 질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여덟째, 질문 유형별 빈도를 해석하였다.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질문 유형별 빈도는 음악 수업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질문 분석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Ⅲ. 연구 결과

1. 질문의 전체 빈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의 의도된 언어나 행위에 의해 학생이 응답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언어나 행위 모

두를 '질문'이라고 분류하였다. 단 교사가 학습 내용이나 방법을 알려 주는 것, 학생의 대답에 교사가 응답하는 것, 그리고 학습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교사 언행 등은 설명, 응답, 지시 등은 기타로 묶어 분류하여 빈도를 조사하였다.

빈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25개의 한국과 일본의 음악 수업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질문과 기타(설명, 응답, 지시)를 포함한 빈도는 1,991번 있었다. 교사의 질문과 기타는 학생의 응답을 기준으로 숫자를 세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횟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수업에서 1,991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1분당 1.8회의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은 1분당 3.5회로 일본의 1분당 0.8회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수업에서는 짧은 구절을 따라 노래하거나 말하게 하는 과정, 혹은 단순한 사실적 지식에 대해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묻는 과정 등이 포함되고 있고, 그것들이 모두 횟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의 상호 작용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학생들의 응답이 빠르게 진행되며, 머뭇거리는 상황을 충분히 기다려 주지 않는 장면이 많아 상호 작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역별 질문의 분포를 보면, 인지적 영역의 질문 즉 언어적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심동적 영역의 질문 즉 음악적 활동을 요구하는 질문도 3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의적 영역의 질문 즉 느낌이나 감정을 묻는 질문은 6%이며, 기타는 33%였다.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질문을 합하면 66%인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학습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여 응답을 요구하는 빈도의 비율을 보여준다. 음악 시간에는 음악적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노래하거나 기악 연주하는 것 또는 창작이나 감상 활동을 하게 하는 심동적 영역의 질문이 월등히 많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업 분석에서는 언어적 응답을 요구하는 인지적 질문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의적 영역의 질문이 6%였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이것은 '느낌이 어떨까요?', '감상을 말해 보세요.'와 같이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질문인데, 이러한 부분에 전체 질문에 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음악 수업의 특성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의 수업은 일본에 비해 기타의 비중이 약간 높고 질문의 비중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시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한국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질문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4> 질문의 전체 빈도

국가	질문			기타			계	분당 횟수	수업 시간 (분)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설명	응답	지시			
한국	441(30%)	437(30%)	74(7%)	136	176	206	1,470	3.5	439
				518(35%)					
일본	164(31%)	168(32%)	54(10%)	45	33	57	521	0.8	665
				135(30%)					
계	605(30%)	605(30%)	128(6%)	653(33%)			1,991	1.8	439

2. 영역별 질문 분석

1) 인지적 영역

인지적 영역은 사실적, 경험적, 생산적, 평가적 질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지적 영역의 질문은 전체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인지적 영역의 질문 중 사실적 질문이 가장 높은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하로 경험적 질문이 24%, 생산적 질문이 19%, 평가적 질문이 가장 낮은 1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차원적 질문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사실적 질문이 55%인데 비해, 일본은 16%로 낮으며, 평가적 질문은 한국이 5%, 일본은 30%로 일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적 질문은 (악보를 보고) “몇 분의 몇 박자예요?”,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닐리리야는 어느 지방 민요입니까?”, (피터와 늑대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악기로 소리를 내지요?”, “오리는 어떤 악기로?”, 등인데,

이러한 질문은 한국의 수업에서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음악 수업이 단순사고의 질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험적 질문은 (음악을 들려주고) “계속되는 느낌인데, 마지막 음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여 주며 그림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이 그림에 무엇이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이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무엇을 배울 것 같아요?” 등 답이 있는 질문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주관을 허용하는 질문인데, 이 부분도 한국이 일본보다 비중이 높다.

생산적 질문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드럽게 표현하려면 리듬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이 부분을 더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 어떤 악기를 넣어야 할까?” 등인데, 이러한 질문들이 일본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가적 질문은 “이 음악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리듬에 한정해서 발표해보자.”, “다른 그룹의 음악이 어떻게 좋은지 말해 볼 사람?” 등 약간의 조건을 주면서 평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였다. 여기에 대한 것도 일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지적 영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사실적 질문이 많고, 일본이 평가적 질문이 많은데, 이는 일본의 수업이 고등사고를 자극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5> 인지적 영역의 질문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

영역 국가	인지적 영역				합계
	사실적 질문	경험적 질문	생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	
한국	244(55%)	122(28%)	54(12%)	21(5%)	441(30%)/1,470
일본	27(16%)	25(15%)	63(38%)	49(30%)	164(31%)/521
합계	271(45%)	147(24%)	117(19%)	70(12%)	605(30%)/1,991

2) 심동적 영역

심동적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신체/그림 등을 유발하는 질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동적 영역의 질문은 전체 중 약 30%를 차지한다. 심동적 영역 중 가창과 관련한 질문이 가장 높은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하로 기악 관련 질문이 28%, 창작 관련 질문이 14%, 감상 관련 질문이 9% 그리고 신체와 그림 관련 질문이 8%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음악 수업이 가창과 기악 활동을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가창이 49%인데 비해, 일본은 24%로 낮으며, 기악은 한국이 25%, 일본은 35%로 일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가창 비중이 높고, 일본은 기악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창작과 감상 그리고 신체/그림 활동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동적 영역의 질문은 교사의 '노래합시다', '리코더를 연주해 봅시다', '시작', 피아노 반주하기, 지휘하기 등의 말과, 신호, 악기 연주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빈도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게 나타나나 세부 활동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가창에 높은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가창 이외에 기악, 창작, 감상, 신체적 활동 등에도 많이 비중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음악 활동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6> 심동적 영역의 질문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

영역 국가	심동적 영역					합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신체/그림	
한국	212(49%)	109(25%)	56(13%)	31(7%)	29(7%)	437(30%) /1,470
일본	40(24%)	58(35%)	28(17%)	24(14%)	18(11%)	168(32%) /521
합계	252(42%)	167(28%)	84(14%)	55(9%)	47(8%)	605(30%) /1,991

3) 정의적 영역

정의적 영역은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느낌을 묻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질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의적 영역의 질문은 전체 중 약 6%를 차지한다. 이 질문은 전문가의 음악이나 친구의 음악을 들려 준 후 '음악의 느낌이 어떠니?', '감상에 대해 말해 볼 사람?', '좋아요' 등 어떤 한계 없이 학생들의 감정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언행에 한정하여 분류하였다. 앞서 인지적 영역의 평가적 질문과 달리 어떤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정을 말하게 하는 질문만 포함하였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7%인데, 일본은 10%이다. 일본이 느낌을 묻는 질문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표 7> 정의적 영역의 질문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

국가	영역	정의적 영역
한국		74(7%)/1,470
일본		54(10%)/521
합계		128(6%)/1,991

4) 기타 영역

기타 영역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설명, 학생들의 대답에 대해 칭찬이나 보충 설명 등의 교사의 응답,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업 시작합니다', '책을 펴세요', '집중하세요' 등의 지시 등이다. 이 내용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고력과 음악적 능력을 배양하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타 영역이 전체의 33%로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수업에서 그 중요성을 말해 준다. 그리고 기타 영역 중 지시가 40%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응답이 32%로 그 다음,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8%로 나타나는 설명이다.

음악 시간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음악 경험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짧을 수 있으며, 수업이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 지식이나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완전히 설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짧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응답의 비중이 기타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데, 이는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응답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교사는 학생의 대답에 대해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지시도 기타 영역 중 40%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업 중에는 질문 이외에 지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8> 기타 영역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

영역 국가	기타			합계
	설명	응답	지시	
한국	136(26%)	176(34%)	206(40%)	518(35%)/1,470
일본	45(33%)	33(24%)	57(42%)	135(30%)/521
합계	181(28%)	209(32%)	263(40%)	653(33%)/1,991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 수업의 교사 질문 분석 기준을 개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음악 수업을 분석하여 음악 수업에서 나타나는 질문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악 수업의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음악 수업의 교사 질문 분석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양종모(2008)의 분석 기준에 기초하였으며, 그 기준을 이 연구의 실험 적용 과정을 거쳐 변형하여 완성하였다. 질문 분석 기준을 준비한 다음, 음악 수업을 촬영한 동영상 25편을 전사하였으며, 그 전사물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교사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수업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 분석 기준은 상당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전의 질문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 분석 기준은 인지적 영역에 한정하여 교사의 언어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계를 두고 있어 음악적 활동이 많은 음악 수업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그리고 질문 이외의 교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분류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이 질문 분석 방법은 음악 수업에서 가창, 기악, 감상, 창작 활동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또 질문들이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계발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우수한 음악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은 인지적 영역 이외에 심동적 영역과 기타 영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대상이 된 음악 수업 동영상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질문과 음악적 활동을 하게 하는 심동적 영역의 질문 그리고 기타(설명, 응답, 지시) 등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각 30%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음악 수업에서 음악적 활동과 함께 지적 이해를 위한 활동도 함께 중시하고 있으며, 수업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타 영역도 비슷한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해와 활동이 중요한 과정을 차지하는 만큼 수업도 인지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음악 수업에서는 생산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의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정해 놓은 답이 있는 사실적 질문과 경험적 질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생산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 이것은 우리나라 음악 수업에서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질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활성화하고 문제해결력을 가질 수 있는 개방적 질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음악 수업은 가창 수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음악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이 가창과 기악 활동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며, 상대적으로 창작, 감상, 신체 활동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가창 활동이 많으며, 일본은 기악 활동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도 특성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가창과 기악의 비중을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 음

악 수업에 기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음악 수업 질문 분석 기준은 계속 진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수업을 분석하는 질문 분석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인 수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특히 음악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음악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이 요구되는데, 이 연구에서 개발한 기준은 장점이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음악 수업을 세밀히 이해하고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음악 수업의 분석 기준에 대한 다음의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음악 수업의 세부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 구분의 기본 틀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등 수업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수업에서 각각의 하위 영역도 어떤 활동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지, 가창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창작은 어느 정도인지 등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활동의 비중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세부 영역 기준으로서는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수를 수용하면서 명료하게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인지적 영역의 사실적 질문, 경험적 질문, 생산적 질문 그리고 평가적 질문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별점을 더 상세히 만들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분류 기준의 기본 틀에 대한 검증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사고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업 전체를 이해하는 기본틀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질문의 의미와 범주 구분에 대한 연구도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 구분한 기본적인 틀이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질문에 대한 질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질문의 양을 분석하였지만 양적 통계가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질문 자체의 내용을 보고 분석하여 수업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응답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흥미를 가지며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을 질문 연구를 통해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전사물을 활용하여 교사의 질문 패턴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이 반응하는 구조를 파악하면 교사 질문의 효능성이나 교육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은아(2007). 음악 개념의 형성 과정에 따른 효과적인 발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향(2008). 교사-유아간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나타난 교사의 질문방법 및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유아교육 제17권 제1호, pp. 81-94.
- 김용환, 김선중(2002). 초등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질문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 6 No. 2, pp. 46-64.
- 김재춘, 박소영(2006).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의 나뭇셈 단원에 제시된 질문 방식 국제 비교 연구: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pp. 71-93.
- 김정아(2007). 개방형 질문에 중점을 둔 통합적 동작활동이 유아의 기본동작능력과 신체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유아체육학회지, Vol. 8 pp. 43-62.
- 류재인, 한광래, 김효남, 박국태(2006). 초등학교 3~6학년 과학 교과서의 질문 방략 분석. 초등과학교육, Vol. 25 No. 2, 109-117.
- 마츠바라 다츠야(1997).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질문과 대답. 정성자 옮김. 교육아카데미.
- 변재현·김민경(2004). 교사의 단계적 발문이 학습자의 수학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교과교육학연구, Vol. 8 No. 2, pp. 199-217.
- 양미경(2007). 질문 창출 노력의 교육적 의의와 한계. 열린교육연구, Vol. 15, pp. 1-20.
- 양종모(2008). 음악 교과에서 교사 질문하기의 분석 근거. 음악교육, 제9호, pp. 153-171.
- 이명숙(2006). 고차적 사고와 질문. 교육적 질문하기. 교육과학사, pp. 55-82.
- 이애숙(2008). 7학년 생물 영역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질문의 유형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2006). 웹기반 토론에서 반성적 사고 능력 축진을 위한 질문생성 전략의 적용 효과. *교육방법연구*, 제18권, 제1호, pp. 95-118.
- 이종일(2006). 교육적 질문하기. *교육과학사*.
- 이희진(1996). 음악적 사고 개발을 위한 교사의 질문 연구. *음악교육연구*, Vol. 15 No. 1, pp. 275-347.
- 전희정(2008).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발문 분석에 관한 연구: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유화(2008). 음악 미적 경험으로서의 '표현, 개념화, 분석, 평가' 과정에 효율적인 발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osser, Patricia E.(2002). 효율적인 교사의 발문기법(송용의 옮김). *배영사*.
- Bond, Nathan(2007) Questioning Strategies that Minimize Classroom Management Problems. *Kappa Delta Pi Record*, v.44 n.1 pp. 18-21.
- Fordham, Nancy(2006). Strategic Questioning: What Can You Tell Me about...Sharks? *Principal Leadership*, v.7 n.1 pp. 33-37.
- Hervey, Sheena(2006). Who Asks the Questions? *Teaching Pre K-8*, v.37 n.1 pp. 68-69.
- Parker, Mary & Hurry, Jane (2007). Teachers' Use of Questioning and Modelling Comprehension Skills in Primary Classrooms. *Educational Review*, v.59 n.3 pp. 299-314.
- Vogler, Kenneth E.(2005). Improve Your Verbal Questioning. *Clearing House: A Journal of Educational Strategies, Issues and Ideas*, v.79 n.2 pp. 98-103.
- Yang, Mikyeong(2006).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Questioning in Education: Limitations of Its Positivistic Basi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v.7 n.2 pp. 195-204.

ABSTRACT

The Analysis of Teacher's Questions in the Music Instruction

Yang, Jong-Mo

This study is intended to develop the teacher's question analysis criteria of the music instruction, classify the question type shown in the music instruction according to those criteria, and to research an appropriateness of question analysis criteria. For the study, 25 music instruction videos of Korea and Japan were selected and then the teacher's questions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after copying them. As the method of the study, those of Korea and Japan were compared by analyzing a frequency of question type shown in the music lesson. In the result of this study, in the good music lesson, psychomotor domain, affective domain and other domain hold the considerable parts. Second, Korean music instruction must have more portions of productive question and evaluative question. Third, Korea music instruction must have more portion of musical instrument instruction. Finally, the question analysis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are useful for analyzing the music instruction, but the constant research will be required by qualitative research.

Key Words : music instruction, teacher's question, analysis criteria of question

투고일: 3월 30일, 심사(수정): 5월 6일(5월 30일), 게재확정일: 6월 3일